

언론은 소통 매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이 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교육 수료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흔히 언론을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다고 한다.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신체의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으로 신체가 마비되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정치·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경제적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저하되어 사회 역시 병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주의해야 한다. 무심결에 내보낸 일회적인 언론보도라도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매체의 범주로 포섭되는 매체의 종류들이 다양화되고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러한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에 완전히 전보되기 어렵다는 점, 소송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조정과 중재, 특히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한 조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은 법적인 해결책보다는 윤리적인 해결책이,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적인 자제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할 때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책임이 전제된 자유’를 말하는 자들도 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매우 좋아했던 필자로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자의 입장이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위원회에서 2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치면서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까워졌다.

물론 책임이 전제된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경시하거나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검열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에게는 명분과 방패막이가 없으면

서 감내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압력과 영향력이 존재한다. 독자와 시청자, 광고주, 정치세력 등은 물론 타언론사로부터의 경계의 눈초리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이 윤리의식 없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경우 이러한 다원적인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명분과 방패막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위가 없는 이상 언론의 권위는 언론에 대한 ‘신뢰’로부터 생기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언론 스스로를 위한 자유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고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가진다. 인간이 갖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 역시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간의 자유와는 구분되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왔고 관련 직역에서 일하는 것을 로망으로 갖고 있었다.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역시 언론과 법의 경계선상에서 일할 꿈을 생각하면 무언지 모를 설렘과 벅차오름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소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닌가 싶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느 옛날 광고의 문구처럼 소통이란, 그리고 소통 매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단순한 전달 매체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소통 매체가 될 것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언론 자체의 윤리의식과 책임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다. 🌈